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재승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동조성(同調性)에 관한 조형성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8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아트디자인과 조각전공

김 봉 철

동조성(同調性)에 관한 조형성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노재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아트디자인과 조각전공

김 봉 철

인 준 서

김봉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혈연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 중심에서부터 사회의 각종 단체 및 집단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성향이 뚜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향 속에서 집단적 규범, 관습이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양식인 동조(同調)의식은 고밀도화 해가는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각 개인들은 이러한 탈개인적 행동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 연구자 또한 유년기부터 이러한 성향이 다분했고, 동조를 통해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특히 동조적 특성은 사회의 가치체계나 체계유지적인 권력 현상과 맞물려 '순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을 빌려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은 한 개체를 체제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선의 가치체계를 이룬다.

이러한 동조성은 한 개체가 사회화하는 과정 중에 사회의 가치 체계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적인 덕목을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도록 한다. 개체의 동조적 성향은 인간의 선천적인 육체적 능력의 결여(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동조성에 의해 가치체계를 내재화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칫 개인의 고유한 실존적 존재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하던 전통사회에서 보다는, 소외와 물화, 그리고 상품화라는 다중고(多重苦)를 겪고 있는 현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조성은 불안한 모습을 띤다. 상품을 하나의 물신으로 여기고 자신의 욕망을 투자해 동조하는 현상이나, 종교적 이데올로기나 권력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동조하려 함으로써 존재의 결여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부정적인 동조현상은 자본주의적 권력이 만들어낸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에 대한 사회역사적, 조형적, 문맥적 탐구를 통해 독립적 주체성을 잃고 물질사회와 허위적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비주체적인 탈개인화된 주체의 모습을 그려 보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통과 해방의 계기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타인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만 된다는 동조의식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각 개인들은 이러한 동조적 행동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 특히 본 논문은 2008년 “집단 속 개인의 동조성”을 주제로 전시된 본인의 작품과 그 이전 시기의 작품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위의 동조성의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2
2. 작품의 표현방법	8
3. 작품분석	12
III. 결론	25

도판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CONNECT, 모자, steel 각봉, 2008 13

【작품 2】 TRANCE, 석고, 2008 15

【작품 3】 맥도널드, 철, FRP, 2008 17

【작품 4】 바라보기, 철, FRP, 2005 17

I. 서론

인간은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여러 종류의 집단(가정, 마을, 직장, 국가 등)과의 연관성 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한편으로 삶의 방식이나 의식구조의 평등이 아닌 차별화를 초래했고 남과 내가 다르다는 불안한 생각은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 시키고 인간성 분열 및 아노미(anomie)¹⁾현상과 소외 등의 문제점을 발생 시켰다.

본질적으로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거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려하며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전체에 반하는 행동이나 돌출적인 언어 등을 삼가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낀다. 집단 속의 개인은 스스로 돌출적 개별성을 약화시키고 보편적 평등성을 취함으로써 소속감과 함께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자신의 심상에 이미 확고하게 정의 내려진 것들도 주위 대다수의 강력한 힘에 부딪히게 되면 다수가 보여주는 권력 앞에 변질, 수용, 또는 복종의 미덕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타인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환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두려움은 개인의 동질성을 일깨우게 되고 종래엔 나약한 동조자를 확대 양산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은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주체적 용기를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따라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편중된 사회적 이기와 모순적 유행을 낳기도 한다.

1) 아노미(anomie)[명사]①<사회>행위를 규제하는 공통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이 주장한 사회 병리학의 기본개념 가운데 하나로, 노이로제·비행·범죄·자살 따위와 같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른다.
②<심리>특수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분리감, 고립감 따위를 느끼는 일

본인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개인의 소극적 동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였다. 즉, 시대적 유행을 쫓아가거나 보편적 진리를 취함으로 해서 나와 남이 다르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인 동조현상을 조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작품제작의 목적이 있다. 연구 범위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나약한 동조성을 조형화하는 것으로 한계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인체표현에 있어서는 인체의 오감(五感)중에서 듣고 보고 말하기 등 동조현상의 기초 원인인 외형적 전달체계를 없애버리고 익명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나약하고 불안한 정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서구 종교의 대표적 형상인 십자가에 서구문화를 명증하는 오브젝트인 맥도널드 형상을 합성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서구 문화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예속화와 동조 현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200개의 준비된 오브젝트(모자)중 하나에 각자 자신의 싸인(sign)을 한 다음 직접 설치하는 행위로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집단의 일원으로 주체성과 안정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치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론의 1절에서는 작품의 문화사회적 배경을 다룸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이 어디서 발로 된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 개인이 느끼는 실존적 상황들은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항상 사회 역사적 구조 속에 놓여져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 소비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개인의 실존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해 보고, 그로부터 문제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불안한, 부정적, 소극적 동조성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어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작품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현대미

술에서 특징적인 상품조각과 차용의 양식에 대해 살펴 보았다. 쿤스와 스타인바흐가 그 예들인데, 이들을 통해 연구자의 방법과 문제의식간의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어 3절에서는 본인작품의 양식적 배경을 앞선 현대 조각의 기법과 연관시켜 생각해 봄으로써 그 둘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을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앞서의 문제의식과 방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리 제기된 목차에 따라 네 작품이 검토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절차적 연구를 통해 불안한 동조성, 즉 물질적 소비사회에서 상품에 대한 욕망과 맹목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 그로부터 생겨난 존재들 간의 소통의 부재, 진정한 존재의 상실의 문제에 어떤 대안적 암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의 문화사회적 배경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타자와의 영향관계는 필연적이며, 주체는 사회적 의식이나, 가치관 등을 내재화함으로써 사회화의 과정을 따르게 된다. 주체는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부터 먼저 존재해 왔던 타자들의 세계, 즉 언어, 타자들의 욕망, 사회의 구조적 체계와 제도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한 개인은 이 타자들의 세계와 동일시, 다르게 말하면 집단적 타자와 동조하면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타자에의 동조는 주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주체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로서의 동조성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가 동조해야 될 타자적인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구조지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즉 주체를 감싸고 있는 사회역사적 배경, 동시대의 가치 체계,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은 동조성을 통해 주체를 파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이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에 있어 동조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소비사회에서 부정적인 동조성의 현상으로서 '상품'과 익명적 욕망의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한다.

소비자본주의라 불리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근대성의 합리적 사고에 기반을 둔 포드주의(Fordism)식의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강조하며 그러한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상품을 하나의 물신²⁾으로 만들어 버리

1) 동조성(同調性)[명사]① 주위 사람과의 사이에 벽을 두지 않고 잘 어울리는 성질.

② <사회>사회생활에서 남과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는 일. 이것의 정도는 그 사회나 집단의 집단 행동이나 응집성(凝集性)의 정도에 비례한다.

2) 물신(fetish)은 하나의 사물이 사물 그 자체를 넘어 인간의 욕망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기에 이른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상품의 물신화에 있다. 상품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어느 시기에든 있기 마련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상품화가 부각되는 것은 무엇보다 상품화의 성격이 근대시기와 달라졌다는 점 때문이다. 근대기의 상품이 주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보증하는 것이었다면, 탈근대기의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교환가치와 더불어 기호가치(sign value)³⁾를 생산해 낸다.

기호가치가 상품의 주요한 소비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보급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미지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⁴⁾의 세계로 말해질 수 있다. 이는 이미지, 즉 재현물이나 복제물이 사물들 그 자체보다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이미지가 실재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상품이 하나의 물신화하는 것은 이미지를 통한 기호 가치의 소비와 맞물려 있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욕망의 논리이다. 소비자본주의는 그 자신의 동력을 이성이 아닌 욕망에서 얻는다.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비형태, 즉 기능에 충실한 소비형태는 결국 수요부족으로 경제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후기 자본주의에서 주체는 상품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상품에 의해 욕망되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의 욕망은 이미 상품에 의해 결정되고, 상품들 속에서 그 만족을 찾게 된다.

예술의 영역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내고 있는데, 이제는 소비재들(consumer products)이 예술작품을 대신해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해내고,

대상을 말한다.

- 3) 기호가치의 예는 광고나 패션의 영역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현대의 광고는 광고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지 않고, 다만 그것과 기호적 연상관계에 놓인, 혹은 소비자의 욕망을 집적 자극할 만한 이미지를 등장시킨다. 명품 또한 이미지, 즉 기호적 가치를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 4) 이미지가 실재를 전복해버려서, 원본없어도 더 원본, 즉 실재보다 더 실재와 같은 이미지를 시뮬라크르라고 한다.

또 그 욕망을 형태화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는 종교(르네상스에서처럼)나 건축(프랑스의 역사화에서처럼)부문에서 예술이 이런 기능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현대의 후기자본주의의 상황에서는 소비품들이 인간 영혼의 내적 활동들을 외면화하고 객관화해낸다. 심지어 이것들은 인간의 감정들이 그 감정들을 받아 들이는 사람들에게 발현되기도 전에, 인간의 취향이나 정서들을 앞질러 보여준다. 또한 상품(commodity)들은 하나의 현상인데, 사람의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⁵⁾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 불리는 탈근대주의에서 주체는 더 이상 계몽주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망하는 주체로 탈바꿈되었고, 자본주의는 이 욕망하는 주체를 부각시키며, 욕망을 자신의 상품에 종속시킨다. 사람들의 욕망은 코드화된 욕망을 담은 상품 속에서 코드화되며, 결국 상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행위는 이제 그것 자체로는 어떤 질적 가치도 갖지 않게 되며, 그것이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치를 갖는다. 다양한 행위의 형식들은 그들 각자의 실천에 고유한 내적인 만족을 잃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⁶⁾ 이제 소비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자아개념의 전달수단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이러한 과대한 소비 지향적인 풍토는 개인의 차별화와 소외, 인간성의 분열, 정체성의 혼란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물질사회를 도래시켰고, 그 결과 인간적 가치, 즉 전통적인 초개인적인 가치들은 소멸하고, 주체들은 물화(reification)와 함께 소외되면서 동시에 미소화되기에 이른다. 경제가 사회에서 독자적인 영역과

5) Daniela Salvioni, 'Jeff Koons's Poetics of Class', *Jeff Koons*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1992), p. 19 참조.

6) 이영철 엮음, 백한울 외 옮김,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시각과 언어, 2008, p. 15 참조.

구조로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본주의적 체제가 인간의 삶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전통사회의 초개인적인 가치들을 교환가치로 전환시켜, 마치 상품이나 사물처럼 취급하고 경제적인 가치체계 안에 억압시킨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허위의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물화(reified)되기에 이른다.⁷⁾

또한 거대 기업체제와 상품경제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집단이 공유할 수 있고, 개인이 동조할 수 있는 초개인적인 가치들이 상실되면서 주체와 사회는 더 이상 접점을 갖지 못하게 되고, 주체와 사회, 그리고 그러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예술작품과 사회의 구조 간에는 괴리가 생겨난다.

개인이 동조할 수 있는 가치들이 상실되면서, 주체는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에 자신의 존재를 내맡기면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로부터 소외되고 물화되는 것이다. 주체는 곧 소비사회에서 상품이 강요하는 것에 자신을 동조시키는 꼴이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비사회와 물질사회가 만들어 내는 '소비'라는 가치에 집단의식이 형성되고, 한 개인의 '소비'와 '상품'에 자신의 욕망을 투자하면서 집단의식에 동조하려고 한다.

물신적 상품에의 욕망은 주체의 것이 아닌, 타자들의 것, 소비자본주의가 강요한 삶의 방식의 산물이고, 이러한 욕망은 곧 익명적 욕망, 즉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아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상품에 동조되고, 상품과 동일시한 욕망인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동조성의 형태이며, 온갖 욕망을 구현하고 있는 온갖 이미지와 상품이 난무하는 현대의 삶 속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동조성의 부정적인 형태이다. 연구자는 본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계하는 이러한 사회 집단속에 깊이 침착해있는 개인의 불안한 동조의식에 관심을 두고 본인의 작품을 통하여 집단속 개인의 정체성 부재로 인한 동조성(同調

7) Lucien Goldman, "Industrial Society and Literary Creation," *Cultural Creation in Modern Society*, Telos Press, 1976, p. 76 참조.

性)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동조성이 높다는 것은 주위의 변화에 잘 휩쓸린다는 뜻으로 흔히 '귀가 얇다'고 표현하거나 '줏대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대다수 현대인들의 공통적 심리현상으로 자아독립성과 주체성 및 자존심 결여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소외, 불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고민해왔다. 이러한 고민은 대부분 작가의 체험적 의식 속에서 대상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왔으며 본인 또한 조형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대상이 갖는 본질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해왔다.

최근 전시를 통하여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인간의 내면이 갖는 심리 중 개인의 소외에 대한 불안과 그림으로 인한 동질적 심리 현상에 대한 연구이며 대상이 되는 인간의 지나친 강박관념이라 할 수 있는 동조적 심리현상을 드러냄으로써 내적 자아의 새로운 발견과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올바른 상황인식 또는 만남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의 표출을 조형화 하는 것, 즉 본인의 주관적 시각에서 보는 집단속의 개인의 동조적 현상들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현대조각에 있어 상품적 오브제와 차용기법의 등장 배경

현대미술에서 예술가들은 그 소대와 표현방법에서 어떠한 규제나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작품에 담아 낸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성적이고 폭력적인, 또는 혐오스러운 일련의 대상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영입하거나 표현해 냄으로써 기존의

고급예술을 향해 조소하기도 하고, 작품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상품이나 오브제를 작품에 차용하여 예술적 관행에 대한 인식의 조각을 유도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쓰는 물건을 작품으로 환원시켜 미술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람이 뒤상이다. 마르셀 뒤상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을 그림으로 옮기는 미술에서의 '재현'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초로 전개했던 사람이다. 그는 레비메이드(ready-made)라는 용어와 개념을 현대미술에 정착시켰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의 오브제가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특별히 주목받는 예술작품으로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선택행위, 즉 아이디어였다. 예술작품은 뒤상 이후, 예술가 주체의 진정성이나 창조성, 원본성을 담보하고 있던 것에서 아이디어에 의해 수집된(found)된 것으로서의 존재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뒤상의 후예로서 후기 조각, 즉 포스트모던적인 조각에서 이러한 레디메이드 전략과 상품(commodity)을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제프쿤스와 하임스테인 바흐와 같은 작가들을 거론해 볼 수 있다. 제프쿤스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자질구레한 실내장식물과 기성품, 산업제품등을 복제하였다. 나무, 내리석, 유리,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물질을 조각과 회화, 사진, 설치 등 모든 기법을 도원하여 작품화하였으며, 대중적 인기가 있는 '키치'와 고급 예술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여 현대 미국의 소비사회적 일면과 그 욕망의 관계를 탐색했다. 쿤스는 역시 자신의 예술이 받아 들여지게 될 맥락을 아주 세심히 설정해 놓고 있다. 그는 전시를 위한 무대로 쓰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있다.(이미지들을 광고판이나 잡지의 광고란에 삽입해 넣는다) 작품을 받아들일 계층과 강한 연관성을 갖고, 커리커처적인 것이 상호 엮히고 설키게 하는 방식, 강렬한 정서적 내용, 그 자신이 받아들여질 무대를 세팅하는 데

신경쓴다는 것, 그리고 예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등은 쿤스의 대부분의 작업에서 보이는 요소들이다.

한편 쿤스의 문제 의식은 계층이 갖고 있는 욕망을 상품의 통해 흉내냄으로써 그 욕망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 쿤스의 첫 번째 작품은 <새로운 것(The New)> 인데, 1980년에서 82년 사이에 그 아이디어가 구상된 것이고, 진공청소기들을 쌓아 올려 만들었고 광고포스터들과 함께 전시되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후기자본주의의 맥락에 있는 상품(Commodity)들의 지위를 탐색하고 있고, 또한 그 자체로 예술작품, 즉 예술작품임을 암시하는 어떤 꼬리표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탈적이다.

쿤스의 *The New*에서 광고물들은 그의 조각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무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들에는 모두 new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플렉시유리로 덮은 진공청소기들은 일종의 토템들인데, 이것들은 광고물들의 틀 안에 있으면서, 극단적인 새로움의 아우라를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업들은 당대의 사회가 새롭고 신기한 것에 투자를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곧 젊음과 영원성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The New"라는 것은 궁극적인 상품인 것이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소비주의, 패션,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학이며, 욕망(불사를 욕망하는)의 주춧돌이다.⁸⁾ 이 작업은 뒤샹의 레디메이드, 언어유희나 에둘러 말하는 방식과 강한 근친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뒤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 조각의 주제는 물신숭배인데, 문제는 이런 상품조각이 미술 작품의 감상자를 상품-기호의 물신숭배자로 위치지운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관람객은 상품이자 동시에 예술작품을 하나의 물신으로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쿤스와 스타인바흐는 정교한 동시에 키치적인 수공예

8) Daniela Salvioni, 'Jeff Koons's Poetics of Class', *Jeff Koons*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1992), p. 20 참조.

품(예를 들어 스테인레스제 기차 모양의 위스키병따개 세트, 도자기로 만든 유명 연예인상)을 주문 의뢰했고, 스타인바흐는 호화로운 동시에 천박한 토산품들(예를 들어, 가구 허애의 이국 동물 트로피)을 구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선망의 대상인 미술작품과 사치품이 욕망의 대상들이자 구분, 혹은 차별(과시, 위신, 권력)의 담지자로서 갖는 하나의 동일성을 강조했다.⁹⁾

쿤스와 스타인바흐는 상품-기호의 사회적 차원을 탐구했지만, 쿤스가 상품기호의 작위적이고 물신숭배적인 측면에 주목했다면, 스타인바흐는 그것의 차별적이거나 코드화된 측면에 주목했다. 쿤스가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상품을 통해 보상하려 했다면, 스타인바흐는 상품이라는 것은 결국 기호들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즉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어떤 기호들의 차이라는 것이다.¹⁰⁾

상품조각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차용으로서 쿤스의 물에 잠긴 농구공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상품 조각에서 차용이 주는 효과는 낯설게 하기의 초현실주의적인 효과를 불러 오므로써 상품과 소비에 대해 경계하게 하기도 하고(스타인바흐처럼), 미술의 상실된 아우라를 상품의 거짓 아우라로 대체하는 것(쿤스처럼)이다.¹¹⁾ 두 가지 경우에 상품조각은 어쨌든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욕망과 그 욕망이 들러붙게 되는 물신화된 상품간의 관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3. 본인작품과의 연관성

9) 할 포스터, 이주연 외 옮김, 『실재의 귀환』,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pp. 176-177 참조.

10) 같은 책, pp. 177-179 참조.

11) 같은 책, p. 180 참조.

본인의 작품 <Connect> 역시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대중적 상품(모자)을 작품에 끌어 들였다는 점에서 뒤샹의 개념미술이나 쿤스의 상품조각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 손으로 만드는 수공적 기술이 아닌 선택의 정신적 행위가 예술에서 가장 본질적이라는 뒤샹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이는 전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여기엔 최근 미디어아트에서 부각되고 있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상호작용성은 작품의 제작, 소통, 향유의 과정에 외부적 요소나 관객의 퍼포먼스가 개입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관객의 참여에 따라 작품의 이미지와 구조가 변형되거나 작품 안에 관객이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등의 구조를 갖는다.¹²⁾

전통적인 미술과 모더니즘 미술에서 작품은 작가에 의해 이미 완결된 것으로서, 하나의 존재가 되고, 관객은 작품과 거리를 두고 미적인 성질을 관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작품과 관객 개념에 도전하여, 작품을 실제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상학적인 체험을 중요시했다. 작품의 완결성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실제 시간이 도입되면서, 연극성이 강조되었고, 이후 퍼포먼스와 과정미술(process art) 등이 나타나면서 관객의 참여는 이제 작품을 이루고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대중 상품인 오브제(모자)는 한편으로는 개성을 보증해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적 대량생산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익명성 또한 강하게 내포되어 있으며, 동시에 은폐, 회피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은폐와 은닉, 또는 회피의 부정적인 기능의 오브제에 관람객의 성격을 비롯하여 인격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행위인 사인(sign)을 통해 관객과 작

12) 도병훈,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두리미디어, 2006, p. 282 참조.

품을 상호작용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를 작품에 적극 도입하였다. 관객은 사인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모자에 위임하고, 곧 본인과 불특정 개인과의 상호연결성과 집단화에 따른 불안한 개인의 동조적 관계를 살피려 하였다.

사인(sign)는 그 사람의 중요한 의사결정 행위이고 사인하는 행위의 의미는 권한의 양도, 책임의 수용, 의식의 결정 등 중요한 자기결심의 표현이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 존재의 확실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관객은 자신의 사인을 대중적이고 동일한 형태의 모자, 즉 동질화된 상품에 기입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존재를 사인을 통해 위임하고, 집단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연구자와 관객은 다만 사인이라는 언어적 기호를 빌려, 그리고 동질화된 모자라는 요소를 빌려 소통하게 되며, 관객과 관객 역시 모자라는 익명적 상품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소통이 언어적 기호를 통한 상징적 소통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소통의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사인을 통한 존재의 공유는 그 행동방식 근처에 신위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집단적 의식에 동참함으로써 소외의 불안과 조건없는 소통의 희망을 보게 되기도 한다.

작품 <맥도널드>는 특정한 알레고리적인 이미지(여기서는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적 산물)를 차용함으로써 대상의 상징적 작용을 실험해 본 작품이다. 여기서 맥도널드를 대표하는 빼어로 형상의 인간 이미지는 이미지화된(허구화된) 자본주의적 서구문화의 막강한 힘과 권력에 대한 표상이다.

코올리지(Coleridge)는 상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징적인 것을 정의하려면, 그것 자체가 언제나 상징하는 대상의 일부이며 동시에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보다는, 그것을 알레고리적인 것으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이다.” 상징은 제유(synecdoche)이며,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상징이란 ‘내적 본질’과 외적 표현과의 표상적인 통합인데, 이 둘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본질은 전체의 요소로서의 관념을 실체화한 전체의 요소 자신과 다름없기 때문이다.¹³⁾

작품 <맥도널드>에서 상징을 통한 방법론적 접근은 본인을 제외한 대상, 즉 세상과의 꾸밈없는 솔직한 만남이고 외형의 시각적 만남이 아닌 대상의 내적 본질에 대한 주체적인 자기 성찰의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즉 코울리지의 말처럼 맥도널드의 인간형상은 바로 서구문명의 부분이며, 또한 서구 문명 전체의 성격을 맥도널드 이미지가 실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징은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본질의 표상적 대리물이라기보다는 그 상징 자체가 하나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듯 상징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근거 위에서 상징은 바로 예술적 ‘직관’의 표상이 된다.

4. 작품 분석

13) 윤난지 엮음,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2004, p. 179 참조.

1. 작품 【 CONNECT 】 -도판1-

재 료 : 모자, steel 각봉, 관람자의 싸인(sign)

크 기 : 가변크기

제작방법 : 받침대가 있는 150cm 스틸 각봉을 30cm 간격으로 200개를 미리 설치한다. 단일색의 모자와 펜을 준비해 두고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자들이 준비된 모자에 관람자가 작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싸인(sign)을 하도록 한 후 관람자가 스스로 자신의 싸인이 담긴 모자를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모자 받침대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전시장 가득 채워나간다.

조각의 구성과 그 효과에 있어 좌대를 이용한 일률적인 배치가 아닌 설치의 형태로 공간을 구성, 해부하면서 일체의 공간에 작가의 감정이입을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시도, 즉 주어진 공간을 구성하고 색칠하고 조각내어 질 때 그 전달성이 극대화 된다. 또한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시각적 작품이 아닌 만지고 체험하고 가능한 작품에 관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가의 심층적 의도가 여과 없이 전달된다.

이러한 관객의 참여는 작품과 대상 또는 작가와 관람자를 보이지 않는 고리로 연결 지어 주며 대상과 피대상간에 전달되는 심적 교류를 통하여 유기적 소통을 가능케 한다. 예술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예술은 그것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관객이 있어야만 그 빛을 발하고 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작품을 설치의 형태로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작품의 주요 구성요소로서의 모자는 의미론적인 기능상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자는 모자의 이중적 의미기능과 관객의 참여를 통해 을 통해 은닉과 보완의 기능적 오브제를 빌려 관객이 자신의 사인을 담은 오브제(모자)를 직접 설치하도록 하여 본인과 불특정 개인과의 상호연결성, 또는 집단과 개인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살피려 하였다.

먼저 사인은 그 사람의 성격을 비롯하여 인격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표현행위이고 사인을 한다는 의미는 권한의 양도, 책임의 수용, 의식의 결정 등 중요한 자기결심의 표현이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존재의 확실한 표식이기도 하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 중 “피에타(Pieta)” 에만 직접 사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당시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이 몇몇 나타나자 “피에타”가 자기의 작품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서명을 하였다. 이것은 모자가 갖는 은닉의 기능과는 정반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걸음 뒤로 물러나 원시적(遠視的) 시각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는 서명은 서로 뭉쳐지고 희미해져 커다란 덩어리로만 보인다. 개인의 특성이 집단의 위용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다른 한편 사인은 다른 의미론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는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외형적 모습을 넘어서서 사회와의 소통적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본인을 제외한 상대, 즉 세상과의 꾸밈없는 솔직한 만남이고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성찰의 적극적 방법이다. 즉 전시 공간에 작품의 뼈대만 설치해 놓은 다음 관람자의 사인이 담긴 오브젝트(모자)를 관람자가 직접 설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작품은 점차 그 형태를 완성해 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과 타인의 묵시적 교류와 은밀한 소통은 시작된다.

전시의 과정에서 동조성과 집단속에 자신을 은폐하려는 속성들이 발견되

었는데 사회적 지위를 상당히 갖춘 -자존적 추체성이 강한- 관람자는 눈에 잘 드러나는 지점에 자신의 사인을 위치시키려는 반면 그렇지 못한 관람자는 가능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을 택하는 모습에서 동조성 속에서도 계층의 차이와 소외현상이 드러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러한 사인을 관람자가 자율적으로 작가에게 표식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상호간 믿음에 근거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집단의 이미지 속에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희망적 메시지의 발견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본인의 전시기간 내내 전시장을 방문한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걸이에 설치를 하면서 매우 행복해 하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미술이 어렵고 자신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라고 느껴왔던 일반대중들의 이질적 감성이 한순간 융화되는 찰나였으며 인식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2. 작품 【 TRANCE 】 -도판2-

크 기 : 가변크기

재 료 : 석 고

제작방법 : 흙을 이용하여 인체를 눈, 코, 입, 손발 등을 제거한 단순한 형태로 제작한 몰드작업(겉틀)을 한다. 몰드작업이 끝나면 속의 흙을 제거한 후 속틀을 성형하고 속틀이 건조되면 겉틀을 제거한다. 이렇게 제작 한 60개의 단순화 한 성형물을 시선방향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되 자연스런 군집형태를 이루도록 배치한다.

집단속의 개체들이 최면적 동조성을 띠는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한 현 시대의 난해하고 다양한 각종 정보의 포화 속에서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현대인들이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결정에 순응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조형화 하였다. 특히 인체를 만들 때 눈, 코, 입, 손발 등 심적 불안을 유발하는 동조현상의 외형적 요소를 제거하여 집단속 개인의 차별적 개별성을 최소화 하였다.

이렇게 외형적인 의사 전달 수단인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각 개인의 형상은 익명성을 가지게 되고 익명성 속에 개인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집단 내에서의 한정된 자유며 목적에 따른 자유임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다. 이는 마치 목각인형이 줄에 매달린 채 조종자의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한정된 자유이며 제한된 자유이다. 종교든 사회든 우리가 속해있는 집단에서 정신적 예속에서 벗어나는 영혼의 자유를 획득할 때, 익명속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는 나다”라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이다.

3. 작품 【 맥도널드 】 -도판3-

재 료 : 철, 혼합재료

크 기 : 1,800×500×2,500mm

제작방법 : 흙으로 맥도널드의 형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순고한 형상으로 제작 한 다음 석고를 이용 겉틀을 입힌다. 겉틀이 완전히 건조된 후 속의 흙을 제거한다. 비워진 겉틀에 이탈제를 입히고 FRP를 이용하여 속틀을 제작한다. 속틀이 완전히 굳으면 겉

의 석고를 제거한다. 겉틀이 제거된 FRP원형에 원색의 컬러페인트를 이용하여 채색한다 채색이 완료된 맥도널드를 steel로 제작한 십자가 형상에 고정한다.

세계화의 구호아래 물밀 듯 밀려드는 서구 집단 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은 우리의 전통적 삶의 형식과 종교, 윤리의식 및 가치관마저도 많이 바뀌 놓았다. 그것은 의식주의 기본적 형태에서부터 사회 구성원의 사고의 방식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스며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중적 매개체(媒介體)를 선택 하였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한 어느새 우리 문화의 중요한 전통적 식 문화를 흡수해버리고 변질시켜 버린 서구 거대 집단의 힘을 '맥도널드 햄버거'로 상징화 하였다. 여기에 사랑과 희생의 기치아래 우리의 정신적 윤리와 종교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아니 용단폭격 해버린 서구종교의 대표적 상징인 십자가를 접목시켜서 위력적이고 서구문화의 전반을 비판적으로 관찰하였다.

4. 작품 【바라보기】 -도판4-

재 료 : 철, 혼합재료

크 기 : 750×880×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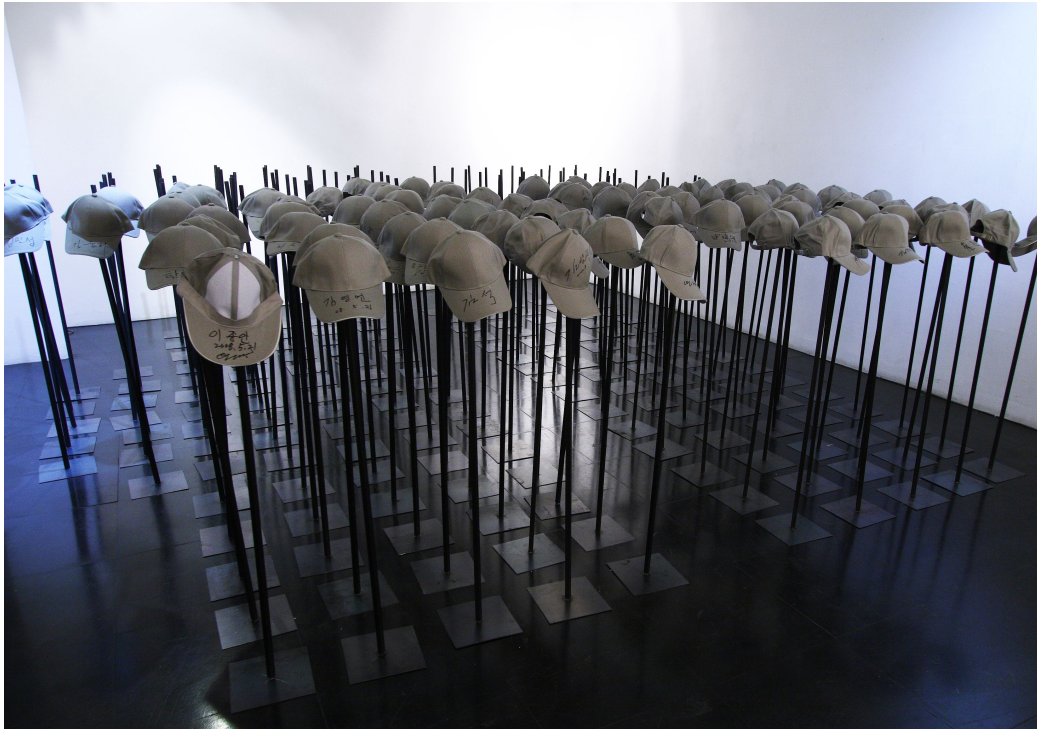
제작방법 : 두께 50mm의 철판을 십자가 형상으로 레이저 절단한다.

절단된 철판위에 사각형의 홈으로 인체군상을 제작한다.

홈으로 만든 군상을 석고성형 후 FRP로 제작한다.

종교적 집단의 맹목적 동조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종교적인 이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얼굴의 이목구비를 제거한 후 하얀색으로 페인팅한 인체들이 시선을 한곳으로 고정된 모습으로 조형화하였다. 이는 백인 우월주의 영화에서 자주 접한 그들의 극단적 인종차별을 형상화한 것으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집단의 배타적 이기심을 조형화한 것이다. 이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십자가를 배경으로 매달은 채 한곳을 응시하는 형태로 표현하여 타 집단과는 다른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영역을 강조하였다.

도판



(도판1) 작 품 『CONNECT』 가변크기 2008
모자, steel 각봉, 관람자의 싸인



(도환2) 작 품 『TRANCE』 가변크기, 석고 2008



(도판3) 작 품 『맥도널드』 , 1,800×500×2,500mm , 2008
FRP , steel에 채색



(도판4) 작 품 『바라보기』 , 750×880×150mm , 2008,
FRP ,steel

Ⅲ. 결 론

동조현상은 인간의 순수성에 기초한다. 인간의 순수성은 하얀 옷에 물감이 번지듯 매우 흡수적이고 빠르며 조건없는 수용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순수한 인간의 감정은 쉽게 전이되며, 반면 심약하고 불안한 감정유발의 기호 원인이기도 하다. 본인의 작품들은 주로 인간의 순수한 감성의 배면에 감춰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집단에 예속하려는 심리적 동조현상을 이미지화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은 본인의 성격 특성이기도 한 이러한 인간 내면의 불안한 동질적 상호현상을 조형적으로 시각화하여 본인을 비롯한 인간 내면의 참모습을 조명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이성을 구축하고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표현 방법으로는 은폐와 은닉 또는 회피의 부정적 기능의 오브제에 관람객의 성격을 비롯하여 인격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인 기호를 연결하는 상호작용으로 본인과 불특정 개인과의 상호연결성과 집단화에 따른 불안한 개인의 동조적 관계를 살피려 하였다.

또한 이상화된 대중적 이미지를 동질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오브제에 대입하여 상징화함으로써 화려함과 순수함 속에 위장된 집단(또는 문화)의 위선을 직시하도록 하여, 잃어버린 진정한 존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람자의 적극적인 작품참여를 유도하여 개인의 소외로 인한 불안한 심리의 동질적 현상을 개념의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체험으로까지 확장하여 좀 더 직설적이고 주관적으로 인간 본연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였다.

본인의 일련의 이러한 작품 연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비롯한 인간의 관성 속에 내재된 순수 감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데 따

른 다양한 방법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제작 및 표현에 있어 개인적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전시과정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와 더불어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 및 표현방법을 모색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자의 과제임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리차드 도킨스 , 이한음 역, 「만들어진 신」, 김영사, 2008
- 귀스타브 르 봉 , 차예진 역, 「군중심리」, W미디어, 2008
- 허버트 리드,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2
- 예술개론 편저조 , 「예술개론」 유흥준, 박수인역, 도서출판 청년사, 1995
- 박승위, 「전환기 한국 사회의 인간과 문제」, 정림사, 2000
- 한석우, 「입체 조형」, 미진사, 2001
- 나카하라 유스케, 이윤신 역 「현대조각」, 한국미술연감사, 1989
- 최병상, 「조형」, 미술공론사, 1990
- Daniela Salvioni, 'Jeff Koons's Poetics of Class' , *Jeff Koons*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1992
- Lucien Goldman, "Industrial Society and Literary Creation," *Cultural Creation in Modern Society*, Telos Press, 1976
- 월간미술 편,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중앙일보사, 1996
- 설석환, 「집단이기주의의 극복방안에 관한 윤리적 접근」, 동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박경희, 「익명적 타자속의 개체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학위 논문, 2005
- 전민선, 「소외이미지에 대한 인체조형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섬유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ABSTRACT

The figurative study on "Conformity"

-In view of Self-works-

Kim, Bong Cheol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hungshin Women's University

Our country has apparently group-oriented culture such as family-centered system which roots in blood, a variety of social groups or communities.

In this group-oriented culture, people tend to repress themselves and try to be in accord with group norms, custom or even others' reaction. Such a mode of behavior arises from the inclination toward 'Conformity'. Individuals in a group feel comfortable in the mode of 'being conformed' behavior based on such an inclination.

On looking back into my childhood, I had a bent for 'conformity' to the normative atmosphere in groups, and I have also gone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in need for 'being conformed'.

The feature of 'conformity' is often expressed as a word of praise, such as 'gentle', 'meek' or 'good', in combination with social value system.

Those word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make an individual conformed with a group system, and furthermore come to be a part of the value systems of virtue. In addition, the inclination toward

'conformity' makes an individual, who is in the process of socialization, unconsciously internalize the values of group, ideologies and moral principles of religion, etc.

Such an inclination stems from the lack of the human physical ability like a spontaneous ability to grow with no help (human beings need parents' help from the moment when they are born). It is a kind of complementary measure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However, if it causes the individuality and subjectivity to be lost, it will be troubling that 'uniformed society' and 'blind mob psychology' occur.

Specially, in the modern capitalistic society, in which a lot of social problems, including the estrangement, materialism and rash merchandising are widespread, the aspect of 'conformity' seems more unstable than in the traditional society in which an individual and society were in peaceful coexistence.

The negative aspects of 'conformed' or 'blindly adapted' (for example, satisfying their desire for materials by apotheosizing goods ,and covering the lack of 'identity' and 'inborn ability' by blindly jumping themselves into political idealogies ,religious beliefs or social power)are special phenomena made by capitalistic power.

Therefore, through historic and figurative investigation, I am going to exhibit the non-subjective state of conformed individuals, who lose their independence and are blindly adapted to the society where materialism and false consciousness prevail.

With the aim of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individuals and a society, and the liberty of consciousness, I am going to directly access to the problem of 'Conformity' through my works on the subject of "The individual conformity in groups".